

무엇에 관해 이야기 할까요?--인지학적 논제

이 창 인
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Cognitive Topic in the 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of Conversation

Chang-in Lee
English Department, Keonyang University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대화(conversation)를 살펴보면, 모든 대화는 어떤 '논제(topic)'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이런 논제 중심의 대화를 인지학적인 견해에서 재고해보고자 한다: 논제는 우리의 인지구조로 부터 어떻게 선택되며, 채택된 논제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가?

I. 개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지학자들은 자연스런 대화 자료를 통해서 보다는 짧은 언어 자료를 통한 '논제'를 연구해 왔다. 근래에 들어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e.g. Schenkein 1978; Atkinson & Heritage 1984) 이라고 알려진 연구를 통해 대화의 구조(structur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이 대부분의 연구는 인지학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논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

Lamb(1971, 1984)의 인지언어학의 기본전제는 첫째, 모든 인간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구조'(cognitive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인간의 인지구조는 우리의 언어 사용에 구현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 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언어학자들은 그 언어 사용을 통해 인지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언어학자 들의 가정이다. 즉, 언어인지 구조는 중앙 인지구조의 일부라고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1]

이러한 인지학적 접근이 인간의 언어사용 만을 통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어에 대한 인지학적 접근은 언어의 영역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도 연관되어 질 수 있다. 예를들면, 인간의 언어사용이 반드시 언어학적 구조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본것'(visual memories)도 언어를 통해 구현되어질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이해과정(decoding process)에 있어서, 언어학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개념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 (e.g. 'the unsaid'). 따라서,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언어인지능력 사이엔 모호한(fuzzy)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언어학자들은 언어 자료와 언어학적 방법에만 국한하여 간접적으로 인지구조를 연구해보는 것이다.

II. 용어설명

이 논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대화체 논제'^[2](conversational topic)는 소위 말하는 '내용'(content)이나 Grimes(1982:165)의 '지시적 분류'(referential system)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이 대화의 논제에 가담하고 있는 한 개인의 인지학적 구조를 살펴 본다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항상 인지학적인 근원을 필요로 한다 할 수 있겠다. 이 인지학적 근원은 대화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대화체 논제'(conversational topic) 혹은 'discourse topic')와 '인지학적 논제'(cognitive topic)의 개념을 분류하기로 한다. 그러면 인지학적 논제란 무엇인가? 인지학적 논제란 개인의 인지정보망 내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 되었음(an activated location)을 말하는 것이다. 인지정보망 내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 점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핵심을 중심으로 연관되어지는 영역 전체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학적 논제는 어느 한 점이 아닌 '단계적인 속성'(scalar property)을 지닌다. 즉, 활성화된 부분 전체가 논제 대상이고, 가장 활성화된 부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논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활성화된 부분의 핵심이 '인지학적 논제'가 되는 것이다. 인지학적 논제는 이런 단계적 속성을 지닐 뿐 만 아니라, 인지학적 논제는 정도가 다른 '보편성'(generalization)도 지닌다. 예를들면, III 장에서 소개되는 대화에서, '유학생활의 추억'이란 것이 가장 전체적(global)이고 보편적(general)인 논제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논제 내에서, 화자는 더욱 국부적(local)이고 세부적인 논제(sub-topic)를 활성화 시킨다. 예를들면, Galveston 가던 도중의 교통사고나 Mr. 윤의 동생에 관한 얘기등이 국부적인 논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 언급되어지는 'nection'은 원래 인지구조망 형성의 최소단위(a fundamental module of which relational networks are constructed)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의 인지구조 내에서는 흔히 얘기되어지는 'sign'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nection은 '개념'(signified)과 '명칭'(signifier)의 구조를 가진 최소단위 이다.

III. 언어자료

다음에 소개되는 언어자료는,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온 유학 동기들이 모여 유학 당시의 어떤 사건을 회고하며 이야기하는 녹음 테잎에서 얻어진 것이다.

모임시간: 1992년 12월 21일

모인사람: Mr. 김, Mr. 오, Mr. 리

(Mr. 김은 Mr. 오와 Mr. 리의 대학 선배이며, 교통 사고가 나던 날의 모임에 불참했다.)

- (T1) 김: (1) 니네, 그때 왜 응--- (1초 정지)
 (2) 그때 왜, 밤 12시 쯤 Galveston 갔을 때 (2초 정지)
 그날 차 사고 생각나냐?
 (3) 도대체 (1초 정지), 한 밤중에 거긴 뭐하러 갔냐?
 (4) 그날 누구누구 갔었지?
 (5) Mr.윤도 갔냐?
- (T2) 리: (6) 그럼요, 그날 그집에서 모였었는데....
- (T3) 김: (7) (3초 정지) 그날 여러 차 해먹었지?
- (T4) 오: (8) Mr.윤 동생 차는 완전히 갔지 뭐 (웃음)
- (T5) 이: (9) 에 차는 샌드위치로 박히고 (웃음)
- (T6) 오: (10) 김영수씨 차는 뒤 트렁크 나갔고----
 (11) 그 애긴 하지도 마쇼, 속 쓰리니까.
- (T7) 김: (12) 왜 그날 김영수씨가 (1초 정지) 갑자기 소리쳤다고 했지?
- (T7) 이: (13) 아-- 그거요? 그날 (웃음) 김영수씨 탄 차가 맨 앞에 갔는
 데, 갑자기 이 양반이 'stop, 바다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quick stop해서 4중 충돌사고 난거지 뭐. (웃음)
 (14) 그날따라 중간에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가로등이
 없는 데라 캄캄했어요.
- (T8) 김: (15) 아니, (1초 정지) 그 사람 왜 바다라고 소리쳤냐? (웃음)
- (T8) 이: (16) 김영수씨 얘기로는 캄캄한데 차가 바닷 속으로 뛰어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 (T9) 오: (17) 근데 (1초 정지) 그 다음 날 밝을 때 가보니까, 왜 바다라고
 소리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 (T10) 김: (18) 아, 참 (3초정지) 그날, 니네 wife도 좀 다쳤지?
- (T11) 이: (19) 처음엔 되게 놀랐는데, 가서 조사해보니까 별것아니었어요.
 (20) 근데 놀라운 건 그 캄캄한데 (1초정지) 사고나니까 어디서

알고 경찰차가 달려왔는지 5분도 안되서 경찰차 3대,
앰브란스 1대가 왔더라구요.

(T12) 김: (21) 그래? 그때 앰브란스도 왔나?

(T13) 오: (22) (3초정지) 운전병씨 동생있잖아---

(T14) 김: (23) 아! 그 사람, 겨울방학 때도 잠깐 놀러왔었지 왜?

(T15) 오: (24)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다혈질 이더라구---
그날 highway 갈때도 계속 120-130 마일 정도로 밟고
갔어요.

(T16) 이: (25) 그 사람 그 전에 와서도 그랬던것 같애. 그전에 만났던
거 생각 나, 형?

(T17) 김: (26) 몰라, 난 그 사람 잘 몰라.

(27) (2초정지) 야, 경찰차 왔을 때, 니네 앰브란스 타고 병원에
갔나?

(T18) 이: (28) 말도 마. 그날 앰브란스에 누워서 병원가는 데 (웃음)
우리 wife는 울고, 나 참--- 나도 한심하기 짝이없더라구.
이거 미국까지 와서 말야, 내가 앰브란스 타고 지금 뛰
하는건가 싶고---

(T19) 김: (29) (2초정지) 그때 왜--- 웅---
그때 사고 났을 때 (1초정지) 면허증 없었다며?
왜 김영수씨가 운전했었나?

(T20) 이: (30) 예?

(T21) 김: (31) 그때 왜 운전 면허증없이 김영수씨가 운전했었다고 했지
왜?

(T22) 이: (32) 아---(2초정지) 그래.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맥주 조금했었고
(2초정지) 아, 그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때 (1초정지)
그 김영수씨 운전연습 시킨다고 그랬을거예요. 예---

(T23) 김: (33) 그러니 그 초보 운전자가 그날 얼마나 놀랐겠나?

(T24) 오: (34) 그래서 그때 경찰이 오기전에 누구랑 자리 바꿔앉았지,

아마---

(T25) 김: (35) 그때 운전 면허증 다 있었나?

(T26) 오: (36) 그 김영수씨 빼고는, 아마 (2초정지)
그런 사고나니까 학생증도 필요하더라구요.
면허증 말고 ID가 있어야지---(1초정지), 나 참---

(T27) 김: (37) 거기서 면허증은 필수품 아니냐?

IV. 인지학적 논제의 채택과 전달

III장의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화자가 대화를 할때, 어떻게 논제가 인지구조로 부터 선택되는가?

즉, 주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둘째, 채택된 논제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가?

첫번째 과제는 화자내의 인지구조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activated)언어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며, 두번째 과제는 화자의 활성화된 부분과 상통되는 부분이 청자(interpreter)에게도 활성화되어 서로의 언어 소통이 가능하게되는 문제일 것이다. 다시말해, 첫번째 과제는 논제가 능동적인 언어사용(production)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두번째 과제는 논제가 언어이해(interpretation)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의 문제로 풀이 될 수 있겠다.

1. 인지학적 논제의 선택

앞 III장의 대화를 살펴보면, Mr. 김은 대화 도중 몇 번의 인지학적 논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Mr. 김의 인지구조 내의 정보가 구성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화내에서 주어가 선택되는 것을 인지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화자내의 인지구조 내에서 어떤 정보가 근접되어지는 기능을 의미한다.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다시말해, 인지구조 내에있는 모든 정보는 인지학적 주어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가장 근접되어진 정보(the most accessible information)가 가장 논제화 되어지는 것이다. 정보망(network) 용어를 사용하자면, 정보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정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1.1. 국부적 조직(Local Organization)

III장 예문 (2)에서 Mr.김은 전체 논제(global topic)에 해당되는 “그때 왜 Galveston 갔을 때, 그날 차 사고 생각나나?” 라는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 전체 주어가 일단 활성화되면, 이와 관계되어지는 국부 논제(local topic)가 파생되어진다. 예를들면, 예문 (3) “도대체 (1초정지)

한밤중에 거긴 뭐하러 갔나?”, 예문 (4) “그날 누구 누구 갔었지?” 예문 (5) “Mr. 윤도 갔나?” 등이 상위논제(super topic)에 관련, 부수되어지는 하위논제(subtopic)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예문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품을 수 있다. “왜 대화 내에서, 일련의 논제가 서로 일맥 상통하게 되는가?” 이에대한 해답은 다음 설명 ‘늘변’(disfluency)이 이루어진 후에 서로 연관하여 제시되어 질 수 있다.

예문의 대화에서 살펴보면, 예문 (1) “니네 그때 왜 응---”과 같이 논제의 시작이 부드럽지 못하든가, 예문 (3)-(5)와 같이 국부논제가 시작될 때와는 달리 전체논제가 시작되기 전에 몇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든가, 혹은 “응--”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개입된다든가 하는 늘변(disfluency)요소가 눈에 띈다. 그러나, 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부논제가 되는 예문 (3)-(5)와 예문 (8)-(11)등에서는 이러한 늘변 요소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늘변요소가 Mr. 김이 새로운 전체논제를 도입시킬 때 주로 발견되어지고, 국부논제 도입 시에는 거의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인지학적 입장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화자의 총 정보망 내에는 어떤 전체논제에 해당, 부속되는 정보들이 내재해 있는데, Mr.김의 인지정보망 내에는 Galveston 도중의 교통사고에 관한 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속 정보들이 포함되어 질 수 있다.

- Galveston에 가게된 동기
- Galveston에 간 사람 들의 명단
- Mr. 윤이라는 특정인도 갔는지의 여부
- 파손된 자동차 수
- 사고동기

Mr.김의 인지 구조망 내에는 이러한 정보 들이 중심부 nection과 연관되어 여러개의 복잡한 nections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복잡한 nections 속의 개별적 nection은 또 다른 nection과 서로 연결되어 상황에 따라 논제의 활성화가 변화되어 질 수 있다. (1.2에서 보충 설명) 중앙 중심적 nection은 다른 하위 nections와 통합되어 하나의 인지단위(cognitive unit)를 형성하게된다. 따라서, 일단 중심논제가 활성화되면 이 활성화는 중심부 논제와 관련되는 하부영역(subarea)에 까지도 여파를 미치게된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앞에서 질 문된 “왜 일련의 논제가 상통하게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대화 내에서 Mr.김의 부수적 질문이 산발적인 열거가 아니라 예문 (2)와 관련되는 질문을 형성하게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늘변요소에 대해서도 인지학적 견지에서 설명하자면, 화자가 정보망 내에있는 어떤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질 때, 논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상 약간의 문제가 생

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처음에 전체논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의 정보망으로 이루어진 인지구조를 탐색(search)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탐색작업은 인지망의 여러 부분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작업이므로 탐색 시간이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전반적인 논제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논제의 활성화는 훨씬 간단하고 시간 절약의 과정이다. 즉, 세부적인 논제의 지정은 더 적은 면적의 정보망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탐색작업인 것이다. . 그러므로, 세부적 논제가 되는 예문의 질문에서는 거의 늘변요소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부조직(local organization) 개념의 1) Mr.김의 총체적인 논제와 그에따른 국부적 논제와의 결속성, 2) Mr.김 대화 도중의 늘변요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1.2. 연관의 근접성 (Proximity of Connections)

Galveston 가던 중 교통사고에 대해 얘기하던 도중, Mr.김이 Mr. 리 부인에 대한 또 하나의 전체논제를 도입시킨다.(예문 18) 이러한 새로운 전체논제의 도입은 Mr. 리의 정보망 내에있는 새로운 부수적 영역을 활성화 시킨다. 새로운 논제의 도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3초간의 머뭇거리고 “아”이라는 비언어적 늘변요소가 삽입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문 (20)이다. 왜냐하면 예문 (20)은 앞 예문 (18) Mr.김의 ‘다쳤다’ 라는 언급에 의해 야기되어졌기 때문이다. Mr.김의 부상에 관한 언급은 Mr. 리의 인지구조 내에서 ‘미국 내의 경찰차의 엠브란스의 신속성’ nection을 활성화시켰다. 즉, ‘부상’이라는 개념이 ‘경찰차’ ‘엠브란스’라는 개념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게된 것이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우리는 앞에서 이미 활성화된 논제와 유사관계가 높은 정보는 근접성(accessibility)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근접성이 높은 정보는 우리 대화내의 논제로 쉽게 채택되어 질 수있다.

이런 유사관계가 높은 인지논제가 쉽게 근접되어 우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것은 쉽게 관찰되어 질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활성화된 논제의 부수 영역 혹은 국부적 논제가 모두 언급되어졌거나 혹은 모두 언급되어지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부수적 논제가 모두 언급되어지기 전에 이미 활성화된 논제와 연관된 정보가 쉽게 접근되어진 예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문 (27)에서 다시 교통사고에 관한 논제가 복원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지학적 논제는 국부영역 내에서 이동성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그 이유는, 앞 1.1 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망 내의 국부영역(subarea)은 구조 내의 국부영역과 분리되어지는 module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서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국부영역의 논제 이동은 가능한 것이다.

1.3. 잔재정보의 재 활성화 (Lingering Activation)

같은 대화 내에서, 유사정보가 중간에 삽입된 후, Mr.김은 엠브란스에 관한 논제를 채택했다. 예문 (27)의 채택은 부분적으로 예문 (21)의 활성화에 의해 야기되어진 것이다. 조사결과, 이와같은 논제의 재도입(recycling of topics)은 대화를 통해 여러번 이루어졌

다. 논제의 재도입은 현재 언급되어지고 있는 어떤 논제가 모두 망라되었을 때 흔히 일어난다. Mr.윤의 동생에 관한 논제가 망라되었을 때, Mr.김이 엠브란스에 관한 논제를 도입시켰는데, 이 논제는 앞 예문 (21)에서 활성화 되었던 논제의 여운이라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즉,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여운을 남기며 기다리던 논제가 현재 언급되어지고 있는 논제가 망라되면 다시 활성화되어 논제로 채택되어지는 것이다.

1.4. 논제 채택의 요약

인지학적 논제채택은 화자의 인지구조 내에있는 정보에 따라 접근성(accessibility)과 관계가 있는데, 이 접근성은 국부적 조직(local organization), 연관의 접근성(proximity of connections), 잔재정보의 재활성화(lingering activation)와 같은 과정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2. 채택된 논제의 전달

일단 Mr.김이 'Galveston 가던 중 교통사고'라는 전체논제가 채택하면, 그 논제를 청자들(Mr. 리, Mr. 오)이 알도록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다. 논제전달의 성공은 각 화자와 청자의 인지구조 내에 있는 같은 부분의 영역이 활성화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서로 간에 논제가 인지되었을 때,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대화자의 서로 분리된 인지구조 사이에서 증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speech signal)이므로 논제전달을 위한 몇 가지의 전략은 언어학적으로 나타나며, 언어학자는 이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논제 전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위한 몇 가지의 전략을 여기 서 살펴보고자한다. 접근성(accessibility)이 논제 채택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듯이 이 접근성은 논제 전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택된 논제가 청자에게 접근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청자는 더욱 그 논제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자는 그 논제의 인식확인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2.1.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r.김은 자신의 인지구조 내의 활성화된 부분과 상통되는 부분이 청자 들에게도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으로써, 예문 (1) 예문 (29)에서 보듯이, Mr.김은 자신의 문장을 되풀이(restate) 혹은 재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재진술의 방법을 통해 Mr.김은 청자들에게 두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는, 청자가 그의 인지구조 내에 그 문장을 정립, 연결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며, 둘째는, 처음에서 시도된 논제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화자의 논제를 이해하게된다.

Mr.김은 이 재진술 방법 이외에도 약간의 억양 조절을 통해 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예문 (29)에서 Mr.김은 논제어구(topic phrases)에서 '면허증'과 '없었다며?'라는 어휘에 약

간의 강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강세는 청자가 '면허증 없었다며?'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nections를 청자의 구조 내에서 논제로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진술이나 강세이외에도 Mr.김은 "어휘사용"(lexical resources)을 통해 논제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문 (2) 에서 사용된 어구 '생각나냐?' 혹은 논제표시(topic marker)를 나타내는 '은/는'은 화자의 논제를 표시하기위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디케이터는 청자의 인지구조 내에 어떤 논제를 인식시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구의 재반복, 이중강세, 어휘사용은 대화를 통해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써, 대화 서두에서나 전체는제가 바뀔 때에 주로 쓰여진다. 이러한 전략은 논제이동이 더 용이하고 논제의 접근성이 더 높은 국부적 논제 내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사용 목적은 효과적인 전체는제 전달을 위한 것임을 알 수있다. 즉, Mr.김이 사용한 몇 가지 전략은 Mr.리나 Mr.오에게 논제전달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위한 시도였고, 그 결과는 효과적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2. 앞 1.1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는제가 일단 활성화되면, 국부논제의 이해는 훨씬 간단하고 탐색 시간도 적게 걸렸다. 만약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면, Mr.리나 Mr.오의 이해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문 (30)에서 문제가 생겼다. Mr.김이 예문 (29)에서 재반복 전략을 통해 논제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Mr.리가 Mr.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Mr.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부논제이지 전체는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Mr.김은 청자가 이미 전체는제는 이해하고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예문 (31)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국부논제이지 전체는제가 아니다. 예문 (32)-(34)의 예문에서 보듯이, Mr.김의 예상이 맞아 Mr.리나 Mr.오는 국부논제만의 재 언급으로도 대화의 맥을 이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문 (36)에서, Mr.리는 Mr.김이 언급하는 '면허증'에 관해서는 이미 알고있기 때문에 '무슨 면허증이요?'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고 '운전'에 관한 논제를 다시 도입시킨 것이다. 따라서 Mr.리가 이해에 어려움을 가졌던 부분은 국부논제이지 전체는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난다. 지금까지 언급된 비에 의하면, 국부논제는 전체는제와는 달리 인지구조 내에서의 탐색 출발점이 확실해서 활성화되기 용이한 부분인데, 왜 국부논제의 전달에 문제점이 생겼는가? 전체는제와 관련된 질문 중, 청자는 '니네 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었나?' 혹은 "경찰이 면허증 검사 다 했나?"와 같은 질문을 예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예상과는 달리, 질문이 명료하지 못하고, 청자의 인지망 내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지 못한 상태였기때문에 청자는 그 국부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부논제의 문제점은 국부논제 자체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질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청자의 인지구조 내에 화자의 의도된 논제가 접근되지 못한 경우인 것이다.

2.3. 논제전달의 개요

논제전략에서의 경우처럼 화자의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논제전달에 있어서도 청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장에서는 효과적인 논제

전달을 위한 몇 가지 전략(i.e. 어구반복, 이중강세, 인디케이터사용, 국부논제의 우선적 활성화)을 살펴보았다.

FOOTNOTES

1. Chomsky의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 이론과는 달리, Anderson(1983)은 'unitary approach'를 주장한다. Anderson에 따르면, 인간의 수학, 언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중앙시스템에서 조종되어진다.
2.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온 논제는 문장 내에서의 논제 위주였다 (sentence topic). 이 문장 내의 논제는 이 논문에서 언급되어지는 '대화체 주어'와는 별개의 것이다.

REFERENCES

- Anderson, J. R. *The Architecture of Cogn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Atkinson, J. Maxwell, and John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Grimes, Joseph.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981.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 164-176. 1982.
- Lamb, Sydney. "Linguistics and cognitive Networks." *Cognition: A Multiple View*, ed. by Paul L. Garvin. New York: Spartan Books. pp. 195-222. 1971.
- *The Semiotics of language and culture: a relational approach*. In Robin Fawcett, et. al., eds. *The Semiotics of Culture and Language*. London:Pinter. 1984.
- Levinson, Stephen C. *Pragmatics*. London:Cambridge Univ. Press. 1983
- Schenkein, Jim. ed. *Studies in the Organization of Conversational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8a.